제목 : 사방에 안식을 주신 하나님

본문 : 여호수아 21장 1~45절

지난 주간에 방송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슈퍼마켓에 가니 주인도 안 보이고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하고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남자분이 방에서 거울을 보며 가게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 누가 들어오는 것이 보이면 ´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손님들은 스스로 물건을 고르고, 돈도 넣고, 잔돈을 거슬러갑니다. 소변은 스스로 호스로 빼고 대변은 누가 받아내야 하고, 오직 움직이는 것은 입이어서 입으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결혼하자 마자 아이를 가졌었는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너무 해맑은 웃음을 띄고 있고, 부인은 건축현장에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슈퍼마켓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그 부부 가운데 안식이 있었습니다. 사방에 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걷고 말하는 것 자체가 표적이고 기적이라고 김종철 집사님도 기도해주셨는데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원망과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남편이 부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낸 것이 라디오 방송에 나왔는데 부인이 일을 하다가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부인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변을 받아낼 수 있겠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기 변 받아내는 것 같고 즐겁고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누워있어도 돈도 벌고, 부인하고 결혼 생활도 하고, 아들도 낳고, 모든 것 다하면서 기쁘게 2~30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갈아엎을까, 이 사람을 갈아엎을까 하고 오셨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거치고 땅 분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살인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며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21장 전체에서 레위의 성읍 분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레위가 우리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임하기 위하여서
첫째, 마지막까지 땅을 받지 못한 레위에게 성읍을 주심으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레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창세기 49장 5~7절에는 야곱이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예언을 합니다. ´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잔해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 혹독한 노여움에 속했던 두 아들 중에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속해서 존재도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위는 모세가 십계명 받는 동안 아론이 백성들과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 그들을 처단하는 일에 일어났습니다. 형제를 처단하는 일에 누가 하겠는가 했을 때 그 일에 헌신을 해서 삼천명을 죽였습니다. 하기 어려운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 레위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든, 축복이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축복만 믿고 싶고 심판은 싫습니다. 우리는 천국만 믿고 싶고 지옥은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이야기보다는 지옥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축복 설교만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은 같은 의미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재수생 모임을 하면서 ′ 너는 잘하니까 붙을 거야, 붙을 거야′ 하고 떨어지는 이야기를 안 한다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저는 떨어지는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합니다. ′ 떨어지면 네가 수준이 높은 거야. 붙으면 회개해야 돼. 수준이 낮아서 붙은 거야′ 그래서 항상 ′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를 외쳤습니다. 붙은 아이들은 안 그래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떨어진 아이들은 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잘 맞아서 떨어져도 기쁘게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해서 지옥에 안가고 천국에 간다면 천국가서 한 턱 내시겠습니까. 물론 천국은 그렇게 만나는 곳은 아닐 것입니다. 무조건 너무 좋겠죠. 그만큼 이 땅에서는 지옥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 왜 목사님은 밤낮 고난 이야기를 하는가′ 하시겠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수생 모임에는 아이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떨어진 아이들이 요란하게 모였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도리어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저주마저 축복으로 바뀌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에게 ′ 계속 너희에게는 기업이 없다, 기업이 없다, 너희는 내가 기업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은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중요한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땅 분배가 끝나고도 살인이 있고, 도피성이 있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하는데 레위가 열두 지파가 사는 곳곳에 흩어져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전이 있어야 하고, 성전에서 도와주는 제사장의 일을 누군가 해야 하는데 흩어져 살 것이라고 했던 레위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둘 때 안식이 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안식이 있습니다.

http://file.cgntv.net

주말은 부자에게 행복한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주말을 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동의 대가로 번 것이기 때문에 그 주말을 뺏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왜 내 시간, 내 돈을 달라고 해!′ 이럽니다.

인간은 육일 째에 만들어졌습니다.
칠일에는 안식을 했습니다. 칠일은 평강, 샬롬을 즐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존재하고, 그 축복을 받음으로 비로소 월요일부터 노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좋은 주말 보내세요~′ 그 인사말은 틀린 것입니다.
′ 좋은 주일 보내세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주일이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관리하고 삽니다.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빈곤국가로 살아가다다 예수님을 믿고 100년이 되었습니다. 신사참배까지 거부하면서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을 하셨는데 이제 100년만에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해간 큰 이유가 주 5일제 근무입니다. 주일을 성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유럽에 쏟아지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금요일부터 놀러갈 궁리를 하고, 또 놀러다닐 비용을 쓰느라고 헌금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 5일제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데 점점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일날 일을 저질렀다가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폴레온은 1813년 10월 17일 영을 침략했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패했습니다. 김일성도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침략했다가 망했습니다. 일본도 주일날 미국을 침공했다가 1945년 원자폭탄 세례를 받고 망했습니다. 몇 년 전 페리호가 침몰해서 수백 명이 익사했는데 그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전 11시 주일예배 시간이었는데 그 안에는 장로, 집사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일날 놀러갔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그 집안에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는 구원받은 신자의 너무나 당연한 삶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는 구원 그 자체입니다.

거리의 신호등을 보면 파란 불은 가라는 신호이고, 빨간 불은 서라는 신호입니다.
달력에 주일이 무슨 색으로 표시돼 있습니까. 빨간 색이죠. 빨간 불은 반드시 서야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가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신호를 위반하면 죽습니다. 주일에 일하다가는 다 죽는 겁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일에 일하면 천만원을 받는데 주일을 지키느라 백만원만 받는다고 해도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훨씬 복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은 1964년 파리 올림픽의 100미터 달리기의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 주일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메달을 포기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명한 금메달 후보이다 보니까 왕이 경기에 참여하기를 권고하고 왕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완강허 거절을 했습니다. 모두 미친 사람이라고 했지만 뛰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00미터 선수로서 자신의 경기를 놓친 그가 목요일에 있는 400미터 계주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가 물었더니 ´ 100미터는 내 힘으로 뛰었고 300미터는 하나님이 뛰어주셨다´ 고 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는데 나라의 영웅이 되고 평생의 생활비가 보장되는 금메달을 포기하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일은 지켜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무섭게 경고하신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미리 죽이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1부 예배에 왔다가 놀러가는 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눔예배 드리고, 일대일 양육을 받고... 하루 종일 구원을 위해 시간을 드리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이천 년 동안 주일을 지킨 서구 유럽 국가는 대단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주일과 상관이 없는 불교 국가들은 후진국이 돼서 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서구의 나라들은 280년이나 주일을 지키며 쉬었습니다.

나무꾼 두 친구가 나무를 패는데 한 친구는 쉬지 않고 나무를 팼습니다. 다른 친구는 시간마다 꼬박꼬박 쉬었습니다. 쉬지 않은 친구는 꼬박꼬박 쉬는 친구를 보며 ´ 내가 쟤보다 훨씬 나무를 많이 팼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꼬박꼬박 쉰 친구가 더 많은 나무를 팼습니다. 왜요? 쉴 때마다 도끼의 날을 갈았기 때문입니다. 무딘 도끼로 나무를 패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아도 주일 성수를 할 때 가정으로, 국가적으로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의 주일성수가 전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독립전쟁 때도 주일을 지켰고, 링컨은 남북전쟁 때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윌슨 대통령도 1차세계대전 당시 주일이면 공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미국이 저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주일을 지킨 것이 온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고 전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케네디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기 되어서 축복을 받던 미국에 성경 시간을 없애고, 학교 채플 시간을 없애고, 창조론 교육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히피 문화, 마피아, 마약, 권총 사건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교회

가 텅텅 비었습니다. 유럽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텅 빈 것처럼 미국의 교회들이 비어서 한국 사람이 가서 빌려 쓴다고 합니다. 전체 3%가 안 된다고 합니다. 주 5일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바닷가 휴양지, 콘도에 교회를 세우고 주말교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업을 다 분배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내 삶과 죽음을 걸고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예배가 중요하고, 집에서 드리는 가족예배, 나눔이 중요하고, 개인예배인 큐티가 중요합니다. 헌금도 우리의 예배입니다. 신앙고백입니다. 우리들교회는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 모두 기도하며 헌금을 드리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하십시오. 헌금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깜박 잊을 수 있으니 미리 생각하시고, 가족끼리 있으면 손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다고,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드리는 것이 다 예배 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어도 누릴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하나님도 믿지만 우주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내 형편을 모르시겠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이 땅에서 기업을 갖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방에 안식을 누리기 위한 두 번째는
말씀대로 정당하게 요구할 때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들은 레위에게 성읍을 주라고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가 다 끝날 때가지 아무도 레위에게 땅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읍을 주어야 일을 거기에 머물면서 제사를 드리고 일을 할 텐데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부도나고, 내가 이혼하게 됐는데 제사장 챙기게 됐습니까. 교회 챙기게 생겼습니까. 초신자들에게는 교회 오는 것만 해도 큰 일이기 때문에 이것 저것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니까 21장에 와서 "모세에게로 명하사" 주라고 하신 성읍과 들을 요구합니다.

잘 기다리다가 때가 됐을 때 구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구해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구하면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흩어진 각 지파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머물 곳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 주의

일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비굴해지든지, 아니면 자꾸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요구를 해야 합니다. 말씀없이 구하는 모든 것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응답이 도어도 문제입니다. 내 감정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내 느낌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지파들이 다 분배를 받고 있는데 아무 땅도 못 받고 있을 때 레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신경을 안 써줘서 스스로 달라고 해야 하는 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무시 받는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감정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체 본문을 보면 레위가 48성읍, 열두 지파에 흩어져 있는 성읍을 받았는데 그것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좋은 위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성읍을 주셨습니다. 사실 다른 지파도 땅을 받았지만 죽을 때는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변방 땅을 받은 지파도 있습니다. 각자 좋은 땅 받은 사람, 나쁜 땅 받은 사람이 있는데 레위는 모두 중요한 곳에 성읍을 할당 받았습니다.

우리는 만인 레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 레위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말씀대로 구할 때 레위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43절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45절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레위의 성읍이 다 할당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안식도 없습니다.
말씀을 알고 실행하며 기도하며 가는 인생에 안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가 되었는데 약속을 알아야 지키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노예 생활도 하고,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기도 하고, 속아보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을 하고 드디어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전쟁은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방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어떤 노동이 없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내 마음에 감정의 요동이 없어졌습니다. 망한다고 해도 요동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두려움이라고 본다면 점점 두려움이 없지기 때문에 사방에 안식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것이 평강입니다. 사방에 안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두려운 사람이 하는 일은 문빗장을 딱 질러놓고 문 닫는 것입니다.

수많은 두려운 사건과 사람을 겪으면서 나는 두렵습니다. 모든 대적을 당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날마다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이겼습니까. 아이에서도 실패하고, 기브온에게도 속아넘어가고, 40년 동안 날마다 수없이 아파하고 무너지면서 온 것을 그들이 알고, 내가 알고,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구원주가 되어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난 것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부인하고, 의심하고,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옆에 서 계셔도 울고.. 그럼에도 주님은 때로는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때로는 ′ 네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엄하게 야단쳐주시고 경고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인도해주셨습니다.

44절 -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결론은 내가 대적을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넘어졌는데 주님께서는 ′ 너를 이길 자가 하나도 없다′ 고 말씀해주십니다.
사실 얼마나 매일 슬프고, 매일 울고, 매일 졌는데.. 도마처럼 의심하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유다처럼 팔아먹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대적을 다 이겼다고 하십니다.

넘어져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하면 너무도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약속에 의거해서 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방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려면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유행가 중에서도 히트하는 곡들은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의 역할은 나그네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6절 "레위인이 거처를 옮길 때마다"하는 말씀에서 ´ 거처하다´ 라는 단어에 ´ 머문다´ 는 뜻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인생은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그 모델을 이 땅에서 누가 보여주겠습니까. 그 일을 레위에게 시키셨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뿌리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 집 뿐이고, 그나마도 열두 지파의 지역에 모두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백성들 가까이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빈들이나 산속에도 가야하고, 세상 속으로, 또 세상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레위가 나아가야만 열두 지파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레위에게도 가족대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위는 흩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땅 끝까지 가야 하는데 가족끼리만 붙어있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족끼리 열심히 사랑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흩어져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든 가야 합니다. 레위는 흩어져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가족은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지고 열심히 사랑하는 가족들은 부름을 받고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구원이 안 된 집은 아무도 못 갑니다. 가족 한 사람의 구원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도 못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끼리끼리 살라고 구원시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레위처럼 흩어져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흩어지라는 것보다 마음으로도 남편, 자식에게 머물러 있어서 아무 것도 못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남편과 자녀, 부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입니다. 온전하게 가족의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안식이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돕고, 우리들 도피성에 오신 분들을 돕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누림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을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때문에 안식이 없고, 자식 때문에 안식이 없고, 부인 때문에 안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육에서 떠나야 합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레위에게 주신 48개 성읍은 가장 많은 성읍을 받은 유다 지파의 120개 성읍보다, 어떤 지파의 성읍보다도 자세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지면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레위의 영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없다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제사장들을 우습게 본다면 큰 오산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월급 가지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어느 보도를 보니까 삼성의 직원들은 평균 연봉이 7천만원이 넘습니다. 임원 쯤 되면 10억원 대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보면 생각하면 우리가 초라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레위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런 것밖에 모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 첫째,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교인 중의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은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 두 번째, 우리는 절약하고 저축해야 합니다!′ 라고 하자 그 교인이 얼마나 좋았던지 옆의 사람의 옆구리를 쿡 쿡 찌르며 ′ 너무 설교 잘 하시죠~′ 동의를 받아가며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이어서 ′ 세 번째, 우리는 그렇게 벌고 모은 돈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여태 은혜 받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면서 ′ 아까운 설교 다 망쳐버렸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열심히 생활에 사용해야 하고, 레위는 그들을 다 지휘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서 다윗은 "주 앞에서는 우리가 열조와 다름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거하는 자는 ′ 세(稅)로 사는 자′ 입니다. 떠나야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요13장)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함부로 삽니다. 그리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교만합니다.

나그네 인생임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레위인에게 성읍을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3절 -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할당 받은 성읍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주라고 하시니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 줄 것 같았죠. 요단강 건너 전쟁 다하고, 입사 전쟁, 입시 전쟁, 승진 전쟁 다 해서 성공하고 나면 주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성읍이 다 할당되고 땅이 분배 되면 딱 주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제일 먼저 주는 모델로 등장했습니까.

8~13절 -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 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들이요 또 립나와 그 들과

우리의 갈렙이 제일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갈렙이 생명을 걸고 얻은 아낙 산지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얻었는지 강조하느라고 11절을 보면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라고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갈렙에게서 아론에게 줄 성읍으로 첫 번째 뽑힌 곳이 헤브론입니다. 군소리 없이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시어머니를 섬기고 순종해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하고 변화시켰는데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이 둘째 며느리에게 돌아갔습니다. 45년 동안 모시면서 마지막에 대소변도 다 받아냈는데 갑자기 새로운 며느리에게 알지도 못했던 재산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든 아낙 산지, 생명을 내놓고 가서 얻은 헤브론입니다. 갈렙이 생색내지 않고 ´ 혹시 허락하시면´ 나에게 힘든 일을 맡겨달라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것 내놓으라고 뽑혔습니다.

갈렙은 아무 말 없이 주었습니다. 아론이 그 성읍에 거하고 갈렙은 밭과 촌락에서 또 아론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섬기는 데 일등입니다. 2인자의 삶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갈렙이야말로 안식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습니다.

´ 내가 재정 모든 것 다 해서 섬길테니까 아론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이 헤브론의 목회를 같이 해갈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밭과 촌락에 있으면서 성읍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언제나 궂은 일을 맡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첫 번째로 제비 뽑아 주셨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렙이 다 감당할만 하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갈렙을 묵상하면서 내 모든 것이 남김 없이 하나님을 위해 쓰인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지지리도 박복해. 돈하고 원수라도 졌나 왜 돈이 오다가도 가는 거야.´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산을 나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법적으로 나는 받을 것이 없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비 뽑아 주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내가 분배받은 성읍이 대제사장이 쓸 성읍으로 제비 뽑혔습니다.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라틴어로 ´ 고문하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고문 받는 것 같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록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사사는 여호수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갈렙의 사위 웃니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가장 큰 상을 주신 것입니다. 아론보다 더 큰 상을 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게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오늘도 무언가를 포기했다면 결국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부의 한 형제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회사의 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98%까지 일을 완성했는데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거의 완성된 일을 동료에게 인계하고 가면서 왜 이런 일이 왔을까 했는데, 글쎄 얼마 되지 않아서 인계받은 동료가 그 일로 회장님 표창을 받았다는 겁니다. 분해서 살겠습니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사원에게 표창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큐티를 하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형제가 여전히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중요한 일에 추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보고 추천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나를 안 알아줄 것 같아서 못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쓰시려는 사람은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기다립니다.

교회에서는 갈렙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합니다.
직분 때문에 얼마나 시험에 드는지 모릅니다. 성숙한 교회라면 갈렙처럼 이렇게 뒤에서 섬겨야 합니다. 제가 서리집사로 사역을 했다고 구원을 못 전했습니까. 평생 직분이 없다고 제가 일을 못 했습니까. 직분 안 준다고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까. 교회 안에서 배우는 입장이든지, 가르치는 입장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게 포기한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정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대학 때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생활비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는 자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섬겨야 할 일이 많았지만 그 섬김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셨는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으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제사장으로 섬겨야 할 아론의 자손에게 배당된 13개의 성읍이 모두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 지파 중에서 뽑혔습니다. 그 지역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아론 자손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성

읍을 배당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은 것을 보니까 그 기반도 튼튼한 곳입니다. ′ 나는 왜 가운데야, 나는 왜 변두리야′ 이럴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성전이 세워지면 그 가까운 곳에 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갈렙처럼 최고의 것으로 보답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섬기다가 이제는 교회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도 북한돕기, 농아사역, 교도소사역, 툰드라 성경번역 사역,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여러 곳에 보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십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교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도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교회까지 해서 돕게 하십니다. 늘 통이 크다는 소리를 듣더니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사한 것부터 경험을 하게 해오셨는데 끝에 가서 기업을 받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레위처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나폴레온 황제가 평민 차림을 하고 부관과 같이 어느 시골의 여관에서 묵게 됐습니다.
여관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웨이터가 14프랑이라는 계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온도 부관도 그만 지갑을 방에 두고 온 것입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한 시간 후에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니 웨이터는 이해를 하는데 여관 주인은 ′ 정신없는 놈들′ 이라면서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성화를 했습니다. 웨이터가 믿어보자고 해도 주인은 듣지 않고 화만 내고, 할 수 없이 웨이터가 자신의 돈으로 14프랑을 계산했습니다.

한 시간 후에 부관이 와서 웨이터에게 14프랑을 주고는 여관 주인에게 ′ 이 여관은 얼마요′ 하고 물었습니다. 주인이 얼마 전에 3만프랑을 주고 샀다고 하니까 부관이 3만프랑을 내주며 여관을 팔라고 했습니다. 3만프랑에 거래를 마치고 여관의 문서를 받은 부관은 그 문서를 웨이터에게 주었습니다. ′ 오늘부터 네가 이 여관의 주인이다. 너는 나를 믿어주었다. 그것으로 나는 이만큼 기뻤다.′

웨이터가 자신을 믿어준 것으로 나폴레온은 3만프랑만큼 기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온 우주만큼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 나를 믿어달라′ 고 하십니다.

믿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면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까지 땅을 받지 못했던 레위에게 땅을 주심으로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그것을 알라고 마지막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http://file.cgntv.net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놓아야 합니다.
주일성수, 개인예배, 큐티, 헌금 생활, 봉사..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지킨 링컨을 축복하시고, 워싱턴을 축복하셨습니다.
집안에서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말슴에 의거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룰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거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면 이제는 레위처럼 달라고 해야합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구하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임을 알기 원합니다.
머무르다 가는 인생길입니다.

가장 안식을 누리는 비결은 갈렙처럼 끝없이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나누어 줌에 순종할 때 우리의 잔에 눌고 흔들고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이미 이 세상에서 그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갈렙이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기도]

아버지 하나님,
갈렙을 묵상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할 적용을 갈렙이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강요 당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갈렙에게 얼마나 큰 안식이 있었으면 끝까지 이 역할을 감당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갈렙의 안식이 저에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직도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요동하며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는 것은 아직도 욕심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마지막까지 땅을 분배 받지 못했던 레위에게 성읍이 주어졌을 때 안식이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되시고, 그 이름을 송축할 때, 주님만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때 사방에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날마다 넘어지고, 의심하고, 주님이 옆에 서 계서도 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도 나를 당할 자가 없다고 하시는 그 인생을 누리기 원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사방에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머물다 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영원히 뿌리

박고 살 것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떡 고물 바라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사인이며,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 한 번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환경임을 알고 그 환경을 오늘도 누리기 원합니다. 사방에 안식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ttp://file.cgntv.net